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온 지구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무릎 꿇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복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라도 여호와께 돌릴지라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끄심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라도 (시편 96편 7, 1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0호 2012년 6월 3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기도, 공립학교로 돌아가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교내 기도금지 50년 만에 역전되는 하나님의 복귀현상 보도

미국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한 번에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1962년 6월 25일 미 대법원은 하나님과 성경은 공립학교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Engel v. Vitale). 바로 정부와 종교가 하나됨이 정부를 파괴할 수 있고, 종교를 비하시킬 수 있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의 일체 기독교적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판단이었다.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가 사라지면서 자라나는 미국의 후손들은 건국자들이 믿었고 지켜왔던 영적 유산들을 물려받을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됐다.

1963년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경건이나 예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퇴출 감행을 판결했다. 오직 객관적인 혹은 학문적인 이유로 종교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지만 성경은 학교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

러나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성경과 기도가 학교에서 사라진지 50년 만에 공립학교에서는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늘고 있다.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사회는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킨 이후 오히려 종교가 현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교양이란 점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자 콜럼비아대학교 총기 살인 사건처럼 치명적인 살인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는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진 50년의 결과는 어떠한가(50 Years Without Official School Prayer)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립학교에 반드시 기도와 성경의 복귀가 이뤄져야한다고 보도한다.

역사학자들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던 의식을 금지한 1962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즉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 가치를 투사하던 미국 사회와 문화가 놀라우리만치 기독교적 가치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이고, 심지어는 반 기독교적이까지 한 나라가 된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독교의 모양은 법정이나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의식 속에서 그야말로 서약의 '의식'으로서만 남아있게 된 성경이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전에 미국은 보수적인 "WASP"(White Anglo-Saxon Presbyterians)의 성경중심 사상이 미국을 이끌어 오늘의 번영을 초래했으며 오직 성경이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위급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교내 기도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도했다. 그리고 행동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성경을 떠나면서 무기력

해져서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도 못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속주의

가 만연해도 이를 막을 힘이 없어졌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성경을 떠나고 있다. 성경을 떠나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교회이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1963년부터 미국의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봉독을 불법화했고,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이 동양인 이민자를 주로 수용했는데 이 바람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대거 몰려와 기독교를 압도했다. 영국에서 히피족이 들어와 콘서트 초소년의 영혼을 파괴했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구루들이 월남전에 지원 미국의 청년들을 포섭했다. 이에 미국의 징집 기피자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초월명상, 요가 등에 심취하면서 미국의 지금까지의 기독교 문화를 부정하고 "반 기독교적 이교도 운동"을 시작했고 앨리스 배일리(Alice Bailey)가 등장해 뉴에이지(New Age)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3면으로 계속)



여름, 재충전위한 시간으로 만들자!

리더십저널, 소그룹 리더들의 효과적인 여름철 관리 소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울러 2012년의 하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 가까이 오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빠지면서 여름 행사에 집중하는 반면 대부분의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들인 구역, 목장, 순예배들은 잠시 방학에 들어가게 된다.

소그룹 모임들도 방학에 들어가는 이 무렵에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소그룹 모임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모임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목표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중한 사역들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영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여름 방학이라는 시간이 후반기 소그룹 사역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소그룹의 유기성을 단절시키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된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그룹원들의 피로감이다. 모임이 매주 반복되면서 소그룹의 흥미도 떨어지고 소그룹원들의 참석률도 저조해지게 되면 소그룹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반감되고 소그룹 다이내믹은 사라지게 된다. 만약 내가 인도하는 소그룹이나 동참하고 있는 소그룹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된다면 소그룹을 지속성 있고 역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 있다.

리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그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모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서로가 확인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의 남은 여정을 위해서 다시금 소그룹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주거나 새로운 약속을 맺고 소그룹을 위한 기본 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만약 소그룹을 위한 약속서를 나누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더욱더 소그룹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다음으로 자신의 소그룹이 서로의 팀워크를 견고히 해야 할 시기에 놓여있는지, 아니면 말씀 연구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적인 모임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선교나 구제, 봉사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 그 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긴장감이 사라진 소그룹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더욱 역동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분위기를 재생산해 낼 수 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소그룹에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역팀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는 소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전 제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을 맞이해 자칫 방학기간 동안 소그룹의 감각과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소그룹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담이 적을수록 좋다. 단순로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그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단위로 만들어본다면 그곳에서 소그룹원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기존에 형성했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여름에 우리의 소그룹들이 알찬 시간을 보냄으로 소그룹 열매가 더욱 아름답게 맺혀지길 기대해본다!



2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어긴 정책 원서리



3면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7면

제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15면

가정사역 칼럼 김정진 사모(FBM 디렉터)

2012

기간: 2012년 7월 8일(주일)-11일(수)

장소: 허드슨벨리 리조트

전교인 여름수련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엡3:16)

강사



나학수 목사

- 광신대학교 이사장
- 광주겨자씨교회 담임목사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교회전화 718.886.4040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권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박규성



시론

올해 휴가는 어떻게?



양춘길 목사 (뉴저지 웨슬리언교회)

“올해 가족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인사가 오고갑니다. 이미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과 함께 모국방문 등 여행을 떠난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집 저집 휴가 떠났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로 가지”하는 생각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1-2주 또는 2-3일이라도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너무도 바빠 돌아가는 삶의 테두리를 잠시 벗어나면 잊어버리고 살던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이용해 산과 바다, 사막과 호수로 나아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보노라면 이 귀중한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들이 바빠 돌아가는 그 세월동안도 자연은 말없이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오묘되고 복잡한 세상을 감싸주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휴가여행의 중요성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왔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얼마나 삶의 활력이 재충전이 되어서 돌아왔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취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피곤해진 심신을 이끌고 떠나는 휴가의 계획마저 짧은 시간동안 무리를 해서라도 될수록 많은 곳을 돌아보겠다는 생각은 시작부터 피곤합니다. 피곤한 일상생활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생동력은 바른 삶의 목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용한 명상의 시간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들, 함께 둘러앉아 바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가족 대화의 시간, 기도하고 떠나며, 도착하여 기도하고, 온가족이 호텔이나 텐트 안에 둘러앉아 찬송과 기도의 간단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짜여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천의 휴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밤쯤 밖에 나가 장작불을 피워놓고 온 가족이 다소곳이 둘러앉아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사람 한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계심을 느끼고 노래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에는 시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빠 돌아가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휴가나 영성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던지셨던 물음들입니다. 이 물음들에 스스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점검해보는 귀한 영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꼭 기도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지는 해의 저녁노을 등을 바라보면서 토크를 질문에 답해 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1. 네가 어디 있느냐? (창3:9). 지금 나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인간을 향하여 처음 던지셨던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2.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4:9).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3. 무엇을 구하느냐? (요1:38).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21:15, 16, 17).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위의 질문을 묵상하며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 때에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힘찬 믿음과 결단의 열매를 얻는 휴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어긴 정책 되서리

이코노미스트, 중국 30년 시행 ‘한 자녀정책’ 역풍 소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정부 정책으로 역제한 중국이 된 서리를 맞고 있다. 중국 정부가 3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모든 문제가 인구에서 나온다고 평가할 정도로, 중국은 한때 인구문제로 인해 환경문제, 자원문제, 인구밀집현상들이 나타났으며 경제가 낙후된 70년대만 해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급성장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많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고 국가는 인구증가를 제한해야 하는 원칙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녀의 초과생산시의 벌금” 즉 “사회부양비”를 제정해 시행했다. 한마디로, 자녀를 법에서 제정한 인원이상을 낳으면 사회공공자원의 낭비와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기에 이를 벌금으로 충당시키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펼친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바로 이 정책이 중국 사회를 더욱더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Consequence of the one-child policy: Perils of motherhood).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 사회가 고령화하고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 억제 정책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바로 한 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해안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연금 고갈 우려 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1년 49만1273곳이었던 초등학교 수가 2010년 말에는 25만7140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년 노동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임금 상승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농민공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지난해 월 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21% 상승한 2,049위안(약 360 달러)을 기록했다.

고령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경우부터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 법에 명시된 부분을 보면 6가지 벌금을 내야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각 성(省, 조금씩 범 조항이 다름)의 법 규정을 어기고 초과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 △정식으로 혼인 신고 하기 전 아이를 낳은 경우 △임양 시 성(省)에서 정한 범 조항에 어긋난다든가 불법적으로 임양해 양육하는 경우 △재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범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 △중국국적을 가지고 출국해 낳은 경우, △(대만), 港(홍콩), 澳(마카오) 주민과 결혼해 자녀를 출생 시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경우 △그 외에 국민이 국가법에 위배되는 자녀 출생을 했을 때

따라서 “임신”은 더 이상 중국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 아니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따라 경제성장에 악영향

“자녀 초과생산시 벌금=사회부양비”로 “임신=공포”

중국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 2010년에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해 2000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6.6%로 6.3%포인트 낮아졌다.

그 이유는 바로 13억 인구대국인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도입이 지난 30년 동안 철저하게 인구 억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소수민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각 가정마다 한 명의 자녀만을 낳도록 하는 강력한 인구억제를 도입할 당시, 중국 공산당은 “30년 뒤에 인구증가가 완화되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업과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여론을 설득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탓에 재검토 조짐도 보인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장수, 저장 등 5개 성에서 내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실험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5년

쯤 뒤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시한 폭탄’으로 꼽힌다. 중국고령화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체 13억 중국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는 1억6700만명(12.5%)에 이른다. 노인부양이 혈족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는 터라 외동아이 한 명이 향후 부모와 네 명의 조부모 등 총 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경제발전에 따라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노동인구도 2025년 이후 해마다 100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것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녀 정책으로 여아출산이 기피되며 나타난 극심한 남초(男超)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초 발표된 연구는 결혼적령기 남성 2400만 명 이상이 2020년에 짝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5년에 발표된 마지막 국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성비는 남자 119명 대 여자 100명꼴이다.

이처럼 30년 동안 발표된 ‘한 자녀 정책’은 오직 중국에만 있는 ‘인구 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적정 자녀 수를 초월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사회부양비’가 바로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부모 역할을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결국 쟁점이 되고 있는 과연 어떤

라 두려움과 재정적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는 더욱더 기쁨보다는 버거운 벌금과의 싸움을 예상해야 할 정도이다. 당장 벌금을 내지 않거나 연체가 되면, 인구조절국 공무원들이 공안과 같이 집을 찾아와 가구를 부수고 온갖 횡포와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30년 동안 발표된 약법은 중국 보통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멤버 위해 매일 기도하라”

리더십저널, 데이브 얼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의 최고 원리 소개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소그룹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나 다른 이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유대감을 갖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소그룹의 멤버들이 꾸준히 만남을 갖고 관계를 유지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소그룹 외에 일반 소그룹에서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금세 소그룹 지도자는 발견할 수 있다.

NCD의 데이브 얼리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 중에 소그룹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소그룹 리더의 습관들을 제시한다. 얼리는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의 비전과 방향성 제시하는 것 다음으로 기도를 가장 중요한 리더의 습관으로 손꼽고 있다.

얼리는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는 멤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지침이지만 그는 기도의 유익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그룹 리더가

얼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를 할 때 왜 그 소그룹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을까?

리더가 기도의 모범을 보였을 때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범을 보였으니 멤버들은 조금씩 모방하며 자신들도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멤버들이 점차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키워가다 보면 얼리가 말하는 기도의 유익함을 멤버들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기도가 일상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준다는 사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기도가 꼭 필요한 통찰력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 이 외에도 얼리는 기도가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

요한 무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리도 유익한 기도가 소그룹을 더욱 하나로 연합시켜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멤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도의 끈은 소그룹을 묶어주는 가장 튼튼한 재료인 사랑의 실제

요한 무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리도 유익한 기도가 소그룹을 더욱 하나로 연합시켜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멤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도의 끈은 소그룹을 묶어주는 가장 튼튼한 재료인 사랑의 실제

“기도의 끈은 소그룹 묶어주는 가장 튼튼한 재료인 사랑의 실제”

기도, 공립학교로 돌아가고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광기에 가까운 폭력 사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살상 사태로 이어지는 총기 관련 사건들까지 연속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학교에서 한 사람도 성경도 그리고 기도까지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 공립학교에 성경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따르면 미국 37개 주 460개 교육구에서 성경 교사를 채용,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수는 급속히 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도 6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금지한 1963년 연방법원 판결에도 불

구하고 성경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63년 판결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종교나 성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미국의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 과정이 사라졌지만 90년대에 이르러 복음주의자들은 중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성경 교육 과정이 개발됐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성경 교육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타임에 따르면 미국 사회는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킨 이후 오히려 종교가 현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교양이란 점을 깨닫고 있다. 세익스피어 작품에는 성경이 1300번 인용됐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는 표현도 성

경을 모르면 그 느낌을 알 수 없다. 창조론과 진화론자들의 논쟁도 창세기 1-2장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40여년 간 성경 교육이 금지되면서 미국인들의 ‘종교 문맹’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갤럽 조사 결과 미국인 중 절반이 4복음서 중 한 권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고 대답하지 못한 사람은 절반이 넘었다.

타임도 성경 교육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타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성경을 지나치게 자주 인용한다는 점 때문에 성경에 정치적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당조차 성경을 인용한 선거문들이 더 효과적이란 점을 깨닫고 있다”면서 “성경은 우리의 언어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지

적했다.

결론으로, 콜럼바인고교 총기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Darryl Scott)가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기도가 바로 미국에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결정적으로 일깨워준다:

Your laws ignore our deepest needs/your words are empty air/ You've stripped away our heritage,

you've outlawed simple prayer/ Now gunshots fill our classrooms and/precious children die./You seek for answers everywhere/ and ask the question “why?”/You regulate restrictive laws/through legislative creed./And yet you fail to understand/that God is what we need.

(2면에서 계속)

따라서 둘째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부모들은 이혼을 하고 친구나 지인과의 긴밀한 협조로 재혼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아이를 낳는 기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이

다.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 정부가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예외조항이나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조항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미국을 제치고 향후 경제발전의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너무 강압적으로 제정된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중국 정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몇 십 년을 고민해서 만든 인간

의 법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든 법은 결국 한계에 봉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정부,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새소망 칼럼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옛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임금이 한 번은 맛이 기막히게 좋은 요리를 접수한 후 감탄을 했다.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맛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는 세계 제일의 요리사임에 틀림없다. 그에게 많은 상을 주어야겠다.” 그러면서 요리사를 불러들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요리사는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금님, 칭찬해주시니 대단히 기쁘시지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해주시려거든 좋은 야채를 많이 파는 채소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은 그렇다고 생각되어 채소장수를 궁정으로 불렀다. 채소장수는 임금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좋은 야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임금이 이번에는 농사꾼을 불렀다. 농사꾼은 임금님으로부터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임금님, 그것은 틀립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저는 대대로 농사꾼이었기에 봄에 씨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가진 야채가 좋았다는 칭찬과 감사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요.”

사편에 보면 시인은 자기 영혼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라고 권고한 후에 자신이 “사죄함 받음, 병 고침 받음, 생명을 구속해 주심, 인자와 긍휼로 관 씌워주심, 소원을 만족케 해주심, 새롭게 해주심” 등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시103:1-5).

나폴레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이다. 어느 날 그는 교문 앞에서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그 사과가 너무도 먹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나폴레옹은 그 아주머니한테 다가갔다. “사과가 먹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나폴레옹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과장수 아주머니는 사과 한 봉지를 담아 나폴레옹에게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폴레옹은 유명한 장군이 되었다. 장군은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옛날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머리속에 떠올렸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프랑이라는 얼마 어마한 돈을 꺼내 품 안에 넣고 그 오래 전에 만났던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오랜 세월이 흐른 때문에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입니다. 저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과장수 할머니는 나폴레옹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무릎을 쳤다. “맞아! 그...” “그렇습니다. 집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제가 사관학교를 다닐 적에 사과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자, 사과 한 봉지를 가져 제게 주셨죠. 그때 먹어본 사과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품 안에 있던 100프랑을 꺼내어 할머니께 내밀었다. 순간 할머니는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청년! 자네는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정말 은혜를 갚으려면 은혜로 갚아야지.”

사람이라면 남에게 받은바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은혜는 돈보다 더 귀한 은혜로 갚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은혜를 입고 갚지 않으면 인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나 또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

1. 정규 침례 신학교 (M.Div.)를 졸업 하시고 남 침례 교단(s.b.c.)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로 사역이 가능한 분
3. 목회 경력 5년 이상(침례 교회)
4.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유자로 40-50세 초반

● 제출서류 ●

1. 이력 및 학력 증명서, 목사 안수증
2. 목회 소명 및 비전
3. 목회자 추천서(추천인2명)
4. 본인 및 가족 사진
5. 최근 설교(한국어, 영어)2편씩 Dvd, 동영상 Web address

● 제 출 처 ●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 (안 영균 목사)
Rev. Young K. Ahn
116 N. Ormond Ave.
Havertown, Pa, 19083
(610) 789-3077, (484)716-1185
E-mail: ykahn104@gmail.com
ok_ahn@hotmail.com
제출 기한:2012년 8월 31일 까지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

담임 목사 및 청빙 위원회

부목사님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는 풀타임 부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자 격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M.Div)
 - 2)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3) 이중언어로 설교 할 수 있는 분
2. 구비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증명서
 - 3) 학력 증명서
 - 4) 설교 CD 2개
 - 5) 목사님 추천서 (2인)
3. 제출마감 **2012년 7월 31일**
4. 제 출 처
 - 1) 주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2) E mail: yspcpastor@gmail.com
5. 문 의 김대호목사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담임 이용걸목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교육칼럼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5

다음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하여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지난 6월 18일 이민신학연구소와 남가주한인목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민신학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개혁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목회”라는 주제로 다음세대 목회자들을 트랙 강사들로 세워 아주 보기 드문 아니, 아직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우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혁세대와 차세대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다음세대목회를 위한 심포지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귀한 시도요,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있었지만 대체로 문제점들만 들어내어 놓고 대책이 없이 심포지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차세대목회자 Presenter들의 대부분이 거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은 개혁세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털어 놓았습니다. 대체로 1세대 목회자들이 먼저 다음세대 목회자들에게 손을 내밅니다. 함께 목회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대체로 토의가 없이 명령을 내리고 순종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세대(부모세대) 목회자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열정은 다음세대가 배워야 할 부분이지만 의식구조와 대화하는 방법과 사역현장에서 목회방법 등은 아주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

르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정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것이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과 젊은 날들을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하물며 부모세대가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라라”라

고 강요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 중 얼마나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말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를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갈수록 자녀들의 의식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전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자식들은 내 말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녀들이 착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운 것인지... 과연 이와 같은 관계가 얼마나 갈까? 하는 염려가 동시에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 자녀 세대 소통부재 괴리감은 문화적 차이가 원인 복음전달매체는 시대와 문화적 환경...성육신 방법으로 접근

고 강요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 중 얼마나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말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를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갈수록 자녀들의 의식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전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자식들은 내 말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녀들이 착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운 것인지... 과연 이와 같은 관계가 얼마나 갈까? 하는 염려가 동시에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지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특히 문화적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문화적 언어를 몰라 불행하게 순교한 일들이 빈번했던 과거를 알 것임니

고 강요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 중 얼마나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말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를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갈수록 자녀들의 의식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전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자식들은 내 말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녀들이 착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운 것인지... 과연 이와 같은 관계가 얼마나 갈까? 하는 염려가 동시에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지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특히 문화적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문화적 언어를 몰라 불행하게 순교한 일들이 빈번했던 과거를 알 것임니

고 강요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 중 얼마나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말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를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갈수록 자녀들의 의식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전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자식들은 내 말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녀들이 착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운 것인지... 과연 이와 같은 관계가 얼마나 갈까? 하는 염려가 동시에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지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특히 문화적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문화적 언어를 몰라 불행하게 순교한 일들이 빈번했던 과거를 알 것임니

는 이방종교나 문화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넘어 복음은 계속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문제도 성경적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의할 시간이 없어 현장에서 물을 수가 없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성경적 방법이 무엇이나고 말입니다. 개혁세대와 차세대 간의 갈등문제의 성경적 해결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교육학자 컷츠의 이론에 의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3가지의 렌즈에 의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istorical Background와 Cultural Background와 Biblical Background에 의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의 보좌와 문화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낮고 천한 신분으로 그리고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셨으면 우리와 100% 똑 같은 몸을 입으시고 배고픔과 아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생활을 할 것인가

를 가르쳐주셨으며,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사명을 따라 다음세대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들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부모세대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사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본 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부모세대가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로 가르친다면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교육방법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방법은 사제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15편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현재 신학교를 졸업한 부목사로 머지않은 장래에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격이 곧고 정확해서인지 남과 인간 관계를 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폭 넓게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야 하는지요?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목회는 영혼을 다루는 복합적인 종합 예술이기에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프로이기에 폭넓고 따뜻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사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목회자는 먼저 좋은 멘토가 있어 멘토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내공을 배워야 한다. 항상 나보다 한수 위인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선배나 존경하는 목사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즐기게 쫓아 다니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목회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물론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보면서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목회를 하다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반드시 나의 멘토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온 충고와 지혜를 잘 받아들일 때 젊은 목회자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멘토를 다양하게 사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좋은 친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멘토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도 교단과 신학배경, 교회크기를 초월해서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좋은 멘토, 친구, 인간관계...저주는 게 이기는 것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불장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평생 함께 가는 목회자 친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석에서나 설교에서 함부로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습관은 절대 안됩니다. 한국에서는 자기와 조금만 신학이나 목회 방향이 다르면 너무나도 쉽게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이 달라도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무서운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왕따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품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목회를 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목회에도 그렇듯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폭넓게 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항상 울고 그른 것만을 따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 한 것만이 옳다고 할 때는 항상 인간관계가 삐걱대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항상 조금 손해본다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말로 바보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력은 날카롭게 사람대하는 태도는 좀 모자란 듯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목사라도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원리를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들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회복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뚜렷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의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2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어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신앙고백서
- 명함판 사진(2"x2")2매
-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퀵즈장로교회 내 2층)
- 원서접수마감 : 2012년 9월 7일(금) 오후8시
- 입 학 시 험 : 2012년 9월 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영 성 훈 련 : 2012년 9월10일(월) - 12일(수) 저녁 8시
-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무 : 문경원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남아시아의 므루(Mru)



므루(Mru)족은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세 나라가 교차되는 곳에 살고 있다. 일부는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산지(Chitragong Hills)의 열대삼림에 있는 약 200여개의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상 대다수 므루족들이 서부 미얀마의 아라칸 요마(Arakan Yoma) 주(州) 평야와 산지, 또 북동부 인도의 잘파이구리(Jalpaiguri)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모국어는 므루(Mru)어로 불린다. 방글라데시의 므루족에게는 자신

들의 언어와 연관된 전설이 있는데, "토라이"(Torai-the great spirit)라는 위대한 영적 존재가 므루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 문자를 주었으며, 우연히 자신들만 제외했다는 것. 그래도 여전히 그 신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믿는다.

므루족은 상당히 고립된 민족인데, 이는 국가정책으로 전략적인 국경지대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외부인들이 그 땅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대규모 군대에 의해 축출된 벵갈 농민군들이 오하려 그 일대 전략지대로 숨어들어갔으며 므루족은 군비들로 무장해서 그들

과 맞서 대항했다.

삶의 모습

대다수 므루족은 농부들로 일찍이 관개농법을 이용한 벼 농사법을 받아들여왔지만 대부분은 계단식 밭에서 화전농법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2년마다 한번씩 새로운 땅을 찾아 옮겨다녀야 하는 반유목민 생활을 하는 셈이다. 남녀가 공동으로 밭일을 하며 쌀은 미얀마 므루족에게 가장 주요한 작물이다.

므루족의 자연환경은 풍부한 재목과 수력전기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지식 부족으로 경제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가난한 농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가난을 "토라이"가 운명적으로 준 것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신들의 생활에 자부심을 느낀다. 므루족 각 가정에서

는 자기들이 쓸 물건을 직접 만들고 다른 필요한 물건은 평지에서 열리는 주말시장에 가서 목화를 팔아 옷, 소금, 칼, 그릇 등을 얻는다. 므루족은 대체로 목재 또는 대나무 등을 이용해 집을 짓고 가족들도 집들의 튼튼한 기둥아래서 밤에 추위를 피한다.

므루족 사회는 씨족이나 혈연집단으로 나뉘지며 외부사람과 결혼하기도 한다. 촌락공동체는 민주정치를 한다. 촌장이 있지만 명목상의 권위를 지닌 정도이며 적당한 교육 시설은 없다. 청년들은 16세가 되면 머리카락을 변발로 꼬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턱엔 위에 장식용 꽃 모자를 쓰기도 한다. 청년들은 대개 배우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지만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혼전성교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데, 임신은 하게 되면 바로 결혼을 해야 한다. 일단 부부가 여

러 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면 분가한다.

므루족 남자들은 농사일 외에 주로 대나무 공예품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다. 므루족 여자들은 특히 수제품 보석이나 장식품 치장하기를 즐겨한다.

신앙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므루족들은 실제 불교적 요소가 섞인 토속 신앙을 가진다. 불, 물, 숲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토라이"의 전설에 얽힌 믿음이 그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므루족의 조상들은 다른 부족들이 모두 문자와 생활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위대한 영, 토라이에게 소를 제물로 바치며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규범과 문자를 줄 것을 청했다. 토라이는 바나나 잎에다 규범들을 적어주었지만, 약한 동물이 그 바나나

잎을 먹어버렸고 므루족은 다시 불행하게 됐다. 이 설화를 기념하기 위해 소를 바치는 축제가 매년 이를 동안 벌어지는데, 이 축제가 므루족들의 가장 큰 연중행사이다. 미얀마의 므루족은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약 95%가 불교도이지만, 정령숭배사상도 지키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므루족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곤궁한 종족이다. 가난과 문맹에 묶여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들을 향한 토라이신의 뜻이라는 생각에 불 잡혀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므루족을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가 몇 있지만 현재 미얀마의 므루족을 섬기는 선교단체는 없다. 더 많은 사역자와 기독교방송들, 므루어로 된 복음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11살 소년에게 목사 안수? 자질 논란

[미션라이프] 미국에서 11세 소년이 목사 안수를 받아 예배를 인도해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에스겔 스토다드(11)는 미국 메릴랜드 주 오순절 교단의 한 교회에서 주일 11시 설교를 맡고 있다. 그는 목사인 양친이 개척한 가정교회에서 지난 5월 목사 임명을 받았다. 그는 안수를 받기 전인 7-8세 때부터 예배를 인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예배 인도뿐 아니라 지역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도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스토다드는 하루에 3-4시간씩 성경 공부에 매진하면서 목회 준비를 하고 있다.



스토다드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있어 나이는 중요치 않다"며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이다"고 강조했다. 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은 스토다드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회의 교인들은 어린 목사의 목회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인의 수도 날로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A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스토다드의 목사 안수 소식을 전하며 찬반 여론을 전했다. '목사를 하기에 너무 이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자칫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나'는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다.

코마 목사의 자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카논 톱톤이라는 이름의 4살배기가 가족 교회에서 웅얼이 하듯 설교해 논란이 됐다.

"미대선 누가이겨도 살림살이 그대로"

미국민 과반은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버

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나뮷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누가 이기더라도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AP통신/GfK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승자가 실업 현안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는 "거의 없다"거나 "아예 없다"고 밝혔다. 또 55%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 해결에도 어느 한 쪽의 승리가 "단지 조금 영향을 주거나 거의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2%에 그쳐 2007-2009년 경기후퇴(리세션)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두 후보가 모두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들의 처방 계획에 회의적이지 않다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ABC 뉴스 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란, 음주누범 2명에 사형 선고

이란 법원이 금주령을 3차례 어긴 죄목으로 기소된 시민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반관영 뉴스통신 ISNA가 25일 보도했다. 이란 북서부 코라산라자빈 주법원의 하산 샤리아티 재판장은 전날 "술을 마신 혐의로 3차례 우회 판결을 받은 시민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형이 확정되는 대로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이미 2차례 음주가 적발돼 각각 채적 80대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최고법원은 이미 금주령을 3차례나 어긴 누범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앞서 지난 2007년 한 누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도입, 음주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오직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이 같은 '금주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음주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 밀반입되는 주류는 해마다 6천만-8천만ℓ에 달하며 이 가운데 ¼ 정도만이 경찰에 압류되고 있다고 이란 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란에서는 음주 외에도 살인과 강간, 무장 강도, 5kg 이상의 마약 거래 등을 중죄로 간주,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란 경찰은 전날 마약 밀반출 혐의로 일본인 4명을 3개월째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최소 360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 중 ¼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당했다.

이라크 유력 성직자, 총리 퇴진 촉구

이라크 정국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사진)는 24일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개혁에 자신이 없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노선을 유지해 온 알 사드르는 이날 시아파의 성지로 꼽히는 나자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아파 정부가 그동안 소수세력을 소외시켰으며 법률 시스템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알 사드르는 현재 정국을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온 의원 40명에게 알 말리키 총리 불신임안을 찬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다른 정파들도 가세해 정권 퇴진에 필요한 163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 사드르는 "알 말리키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싶지 않다. 처음이자 마지막 요구는 개혁이며 다른 세력들을 소외시

키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총선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알 사드르의 지지에 힘입어 정국을 운영해 온 알 말리키 총리로서는 알 사드르의 이번 발언이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알 사드르는 "수장이 개혁되면 그것 이상의 모든 것이 개혁된다"고 지적하고 "총리 불신임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신임이 정부의 의무 수행을 늦추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하며 소수 집단이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지적은 이미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고 알 사드르는 강조했다. 알 사드르의 이런 경계에 대해 알 말리키 총리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불신임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미동부 해수면 지구 온난화로 급상승

미국 동부 해안의 수위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상승해 홍수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경고를 나왔다. 에스버리 셀러저 2세 등 미국 지질조사국(USGS) 소속 연구진은 24일 저널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실린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로 미 동부 대서양에 면한 해안 지역 955km가량이 해수면이 높아지는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대서양 수위는 지난 1990년 이후 전 세계 다른 곳보다 상승률이 3~4배가량 높은 데다 그 속도도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셀러저 연구원은 지난 1950년을 기점으로 해수면을 관찰해왔으며, 이 결과 1990년부터 해수면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 이후 세계 해수면은 약 5cm가량 높아졌지만, 물난리가 자주 발생하는 버지니아 주 노퍽의 해수면 상승폭은 12.19cm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의 해수면은 9.4cm, 뉴욕은 7.11cm나 각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그린란드와 남극 서사면의 얼음층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후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4. 성경의 금금종들(15) - 바벨탑 사건이 정말로 있었는가?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가? 그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는가? 진짜로 언어가 이때 나누었는가? 창세기 1-11장을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인 지구가 나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그가 벨렉이라고 불린 것은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로 흩어질 때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 노아홍수의 무서운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흑사라도 다시 오게 될 대홍수를 대비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바벨탑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 역대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James Ussher(1581-1656)의 것으로 '세계 연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다. 이 책은 8000개가 넘는 참고 문헌을 수록하여 그 연구의 방대함과 깊이를 느끼게 한다(신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존 뉴턴도 이 연대기를 사실로 믿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후 106년에 즉, 노아의 5대손 벨렉이 태어났던 해다. 창세기 10장 25절에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여서 주교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의 주요 역사 연표는 다음과 같다: 창조(BC 4004), 노아홍수(BC 2348), 바벨탑(BC 2242), 아브라함의 부르심(BC 1921),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심(BC 1491), 첫 번째 왕 사울(BC 1095), 예수 그리스도 탄생(BC 5).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땅이 나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나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 생육하고 번성 하라고 하신 땅이 갈라지는 사건이 생긴다면 지구는 또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라랏 산이 노아홍수 후기에 생긴 것처럼 지구상에는 노아홍수 이후의 격변적인 지형은 빙하지역 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물리적

인 지구가 나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

BC2242 바벨탑사건 이후 인류는 둘로 나뉘어 모든 인종이 같은 DNA가졌지만 언어는 78개



지구라트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 모형: 바벨탑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들은 다른 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졌다. 이 사건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 문명(BC 2234), 이집트 문명(2188), 그리스 문명(2089), 그리고 호주나미주 문명 등 바벨(현재의 중동)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더 일찍 문명이 발생했다. 이것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남긴 역사적인 증거들이었다.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과는 달리 바벨탑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언어를 혼잡

는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있었다. 만약 그 맹세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바벨탑을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쌓았을 것이다. 또 벨렉은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탑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 갈만큼 충분히 키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대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11:4).

그 탑의 목적은 홍수 대비가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모여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9:1)라고 반대의 명령을 하셨다. 아마 바벨탑의 주동자들은 그 탑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특별한 곳이라고 선전을 해서 사람들이 그 곳에서 멀리 이주하지 못하도록 했을 지도 모른다.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은 역사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사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북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께

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나,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노아의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가?

생물학이 이론 가장 놀라운 업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DNA정보를 다 읽은 인간유전체지도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다. 소위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DNA를 다 읽었는데 결과는 우리 인류가 모두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처음부터 주장하듯이 인류는 한 혈통이란 사실을 과학이 시인한 한 것이다. 지금도 성경에 쓰여있는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가졌거나 변형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중국의 한 부족(Miaotou)의 족보에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으로 한(Lo Han, 함), 로 셴(Lo Shen, 셴), 야푸(Jahphu, 야벳)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언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가? 언어학자들은 현재 세상에는 6900개 정도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언어들을 그룹으로 묶으면 최소 약 94개의 어족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언어를 한 그룹으로는 묶지 못한다. 생물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온 인류의 DNA는 한 조상에서 온 것이 분명하데 왜 이처럼 완전히 다른 언어가 그렇게나 많을까? 글자는 사람들이 발명을 했지만 말을 발명해본 민족은 없다. 이 많은 언어들은 주어진 것이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78개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준 몇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다. 이 범죄 사건을 통하여 민족과 나라 그리고 문화와 인종 등으로 나뉘어 큰 고통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이 죄와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에게 왜 구원자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바로 그 성경은 창조주이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알려 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 gmail.com

영성칼럼



이희령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맘이 흘러야 맛보는 기쁨

"맘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맘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창 3:17-19).

열매 들으면 잘못하고 호되게 회초리 맞고 서있는 아이모습이 연상됩니다. 허나 아이를 징계하는 아버지의 목적이 야단치는 것에 있다가보다는 자식을 사람 만들어보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철들게 하려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입니다. 가장의 책임을 떠맡아내고 변명급급한 못나 모습의 아픔을 책임감이 강한 리더로서의 가장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바람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힘겨워졌습니다. 맘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해낼 수 있습니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꼭하겠다고 졸랐습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이 고장난 고물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피자 가게에서 피자 배달을 했습니다. 돈이 생기기 무섭게 쓰기에 바빠던 녀석이 수고한 것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고난 후부터는 도무지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어컨이 안나와서 어떻게 해. 힘들지 않니?" 그만두라고 할까봐서 괜찮다고 할 만하다더니... 여름이 지나야 차 안이 피자오븐보다 더 뜨거운 적도 많았다고 고백해 가난한 목사님을 아빠로 두어 뭐 하나 제대로 못해준 죄스러운 마음에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었습니다. 고생이 약이 되었는지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기쁨으로 열공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고맙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뻐하실 것일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맘을 흘려도 기뻐하며 열심히 일할수록 큰 아이의 복복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복임을 보며 모든 우리 2세들은 이 땅에서 자신도 기쁨으로 열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시길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맘 흘리는 수고와 인생에 기억이 됩니다.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십시오"하고 그야말로 손끝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바빠 쫓기다 갖는 휴가의 맛은 기가 막힙니다. 허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는 것 먹고 자고 매일 놀게 되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생각해봅니다. 먹고 자는 동물과 같은 삶의 무리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보람에 삽니다. 직장은 은퇴를 하여도 보람있는 인생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일은 마음만 먹고 세상을 둘러보면 주위에 내 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남을 위해 수고할 때 주어지는 그 생의 깊은 만족감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맘 흘려서 수고를 할 때 삶의 소중함을 특별히 배우게 됩니다. 맘 흘려서 열매를 얻을 때 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기쁨을 주는 일거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종신토록 주의 일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상은 섬겨준 이들의 삶 가운데 무르익어가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필경 돌아가도 수고로이 심은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의 씨앗은 심은 이들의 삶 속에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상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는 맘 흘려 섬기는 자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남부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성섭</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8:00 주일학교: 오후 11:00</p> <p>Tel: (704) 441-6421, Fax: (704) 441-1825 www.chpress.org 2619 Melrose Rd., Charlotte, NC 28217</p>	<p>맨허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 유</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703) 422-6400, Fax: (703) 422-6443 www.chpress.org 7750 Kippick Rd., Arden, NC 28705</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재근</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8:00 주일학교: 오후 11:00</p> <p>Tel: (919) 222-6991, 267-771-7777 Fax: (919) 222-6721 www.chpress.org 3260 Morris Rd., Lenoir, NC 286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00(한국어)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학교: 오전 11:30(한국어)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252) 649-1912, Fax: (252) 649-2662 www.chpress.org 1550 Woodrose Rd., Lenoir, NC 28647</p>	<p>멜렐교회</p> <p>담임목사: 전용배</p> <p>주일부흥예배: 오전 7: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45 (한국어), 오전 1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419) 419-1222, Fax: (419) 419-6923 www.chpress.org 2165 St. John Lane, Leamington, ON N0W 1Y0</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택영</p> <p>주일부흥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세례기도: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7:00</p> <p>Tel: (508) 425-4278, Fax: (508) 425-2487 www.chpress.org 2 Main St., Foxborough, MA 01946</p>	<p>폴티모어교회</p> <p>담임목사: 이영성</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p> <p>Tel: (410) 527-8444, 829-0281, Fax: 337-8444 www.chpress.org 1620 Seminary Ave., Hunt, Liberia, MD 21083</p>
<p>샬럿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부흥예배: 새벽 8: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1:00 세례기도: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p> <p>Tel: (704) 334-0205 / (919) 485-5555 www.chpress.org 701 Scotsbank Road, Charlotte, NC 2825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승교</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0(영어)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302) 426-2997 www.chpress.org 6007 Pacific Ave., Newark, NC 28104</p>	<p>사이클링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부흥예배: 오전 10: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00(한국어)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919) 237-2981, 267-725-1725 www.chpress.org 4630 N. I-85, South, NC 28125</p>	<p>알라바마 재지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부흥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8:00(한국어)</p> <p>Tel: (205) 820-8028, 844-731-4225-3179 www.chpress.org 805 Kirby Rd., Live Oak, AL 37017</p>	<p>앵커리지델리안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부흥예배: 오전 10: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후 7:00</p> <p>Tel: (207) 344-6441, Fax: (207) 344-2182 www.chpress.org 2329 Greenwood St., Anch., AK 99518</p>	<p>앨파스델리안교회</p> <p>담임목사: 하계수</p> <p>주일부흥예배: 오전 6:00(한국어)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202) 517-9529-5480, 703-517-4285 www.chpress.org 3218 Arise Ave., Herndon, VA 22041</p>	<p>영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윤권</p> <p>주일부흥예배: 오전 7: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2:00 주일학교: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713) 342-0288, Fax: (713) 342-6227 www.chpress.org 710 Wheeler Rd., Houston, TX 77044</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부흥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254) 334-0705, (254) 331-4823 www.chpress.org 428 N. 8th St., Abilene, TX 7690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한국어)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703) 469-4447, Fax: (703) 469-4448 www.chpress.org 4913 Matthews Rd., Alexandria, VA 22303</p>	<p>주여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창</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15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804) 629-7004, Fax: (804) 629-7514 www.chpress.org 10201 Robison Rd., Richmond, VA 23225</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병삼</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908) 209-0716, Fax: (908) 209-2523 www.chpress.org 3264 Corporate Court, Elizabeth, NJ 07208</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253) 646-1000 www.chpress.org 7461 E. Verde St., Tacoma, WA 98406</p>	<p>타코마사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형</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한국어) 수요예배: 오후 7:00(한국어)</p> <p>Tel: (253) 325-6217, 321-8424 www.chpress.org 8702 E. B. R. Sooner,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수영</p> <p>1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253) 539-8975, Fax: (253) 474-8515 www.chpress.org 8424 E. Yukon Ave., Tacoma, WA 98444</p>
<p>렘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경용</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30(한국어) 주일찬양예배: 오전 10:30(영어)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480) 728-0115, Fax: (480) 667-3627 www.chpress.org 1120 E. Glend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만</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 수요예배: 오후 8:00(한국어)</p> <p>Tel: (860) 669-4738, Fax: (860) 667-6665 www.chpress.org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한국어)</p> <p>Tel: (808) 735-0911 www.chpress.org 152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8</p>	<p>애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정현</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803) 729-7004, Cell: (803) 218-4282 www.chpress.org 1063 9th Ave., Honolulu, HI 96813</p>	<p>하와이 한국교회</p> <p>담임목사: 김순곤</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9:00(한국어)</p> <p>Tel: (808) 277-2526, 667-1778, 642-2822 www.chpress.org 1367 E. Bartlett Rd., Huala,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원규</p> <p>주일부흥예배: 오전 8: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9:00</p> <p>Tel: (808) 947-4282, Fax: (808) 947-6181 www.chpress.org 2122 Melkay Rd., Honolulu, HI 96822</p>	

한인신학교 4곳 ATS 준회원 자격획득

미주장신, 미드웨스트, 그레이스미션, 조지아크리스천 등

ATS(신학교협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총회를 갖고 미주지역 4개 한인신학교에 준회원 자격을 승인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ATS 총회에서 신학교협회는 회원학교들의 표결을 거쳐 6월 20일부로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 조지아크리스천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등 4개 한인신학교의 준회원(Associate Member) 자격을 승인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ATS총회에서 미주장신, 미드웨스트, 그레이스 미션, 조지아크리스천대 등 4개 한인신학교의 준회원 승인후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ATS는 ABHE와 TRACS 등 종교 교육 관련 인가기관 가운데 하나로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아주 사신학교, 그리고 탈봇신학교 등과 같이 학부과정 이후 신학교육 관련 다양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인준하는 기관이다. 현재 ATS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주에 산재한 260개 이상의 회원 학교를 보유하고 있다.

4개 한인신학교는 앞으로 2년마다 열리는 ATS총회를 통해 준회원(Associate Member), 정회원후보자격(Candidacy), 정회원(Member)의 과정을 거쳐진다. 이들 학교는 준회원 자격 이후 5년 이내 후보 자격

을 인준 받아야 하는 과정을 안게 되었다. 미주장신 등 4개 신학교는 이번 ATS 준회원 자격을 승인받음으로써 한인신학교의 위상이 올라갔고, 앞으로 한인신학교의 두드러진 약진을 기대하게 됐다.

현재 한인신학교로서 ATS 정회

원으로 자격을 취득한 한인신학교는 없으며 웨스턴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와 웨스턴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정회원 후보자격(Candidacy)을 이미 취득하고 정회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KAPC LA노회 분립예배

6월26일 LA노회와 LA중앙노회로

미주한인예수교장 로회(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로스앤젤레스 노회 분립예배를 26일(화) 오전 10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예배를 기점으로 본노회는 로스앤젤레스 노회와 로스앤젤레스 중앙노회로 분리되었다. LA중앙노회는 조직교회 6명, 미조직교회 6명, 부목사 2명, 원로목사 1명, 선교사 1명, 무임목사 1명 등 총 17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됐다. 총회서기 이원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분립예배는 총회 총무 공재남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총회장 김남수 목사가 '바울의 부탁(딤후 4:9-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김남수 목사는 "KAPC 교단은 과거에도 노회가 분립이 된 역사가 있으며 총회서기 시절 분립의 현장가운데 있어도 보았다"고 회상하며 "노회가 분립하면서 심자가 밑에 우리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목사들은 누구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며 맡겨진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다. 총회결의에 따라 행정절차를 통해 노회가 분립이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KAPC 총회 산하 목회자들이다. 바울처럼 격려하고 위로하여 거룩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귀한 노회와 노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총회서기 이원호 목사가 분립노회 호명 총회장이 분립선포로 이어졌다. 이날 총회는 부총회장 엄영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침례교 총회, 왼쪽부터 최창섭 직전총회장, 김승호 총회장, 황준석 부총회장

총회장 김승호 목사, 부총회장 황준석 목사

미주 최대교단 미주한인침례교 연차 총회

미주한인 최대교단인 미주한인침례교(총회장 최창섭 목사) 31회 연차 총회가 "교회세우기"라는 주제로 지난18일부터 3일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소재 웨스트인공항공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장 최창섭 목사는 참석 회원들을 환영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인재를 동행하심을 통해 영혼 구원, 교회의 교회됨과 선교의 지경이 이전보다 더 크게 확장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미국과 캐나다, 남미, 나아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의 주강사는 한국 춘천함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로 3일 동안 3편의 말씀을 전했다. 총회 둘째날 19일 저녁에는 국내선교 발표, 20일 저녁에는 해외선교 발표가 있었으며 20일 오전 임원선거가 열렸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승호 목사(달라스산돌침례교회) △1부총회장에는 황준석 목사(필라델민음침례교회) △2부총회장 두지철 목사(갈보리침례교회) △서기 오인균 목사(달라스한국교회) 연인 △감사 박진하 목사(윈스턴침례교회), 정을기 목사(살롱나리교회) △총무 엄종오 목사 연인.

새로 발행된 총회수첩에 따르면 미주한인침례교는 45개주에 719개 한인교회가 속해 있다. 내년 총회는 휴스턴에서 개최된다.

한편 남침례교 미국총회(SBC)는 19일부터 2일간 뉴올리언스에서 "이웃과 열방을 예수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흑인 프레더릭 목사의 첫 총회장 당선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KAPC LA노회분립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 졸업생 등이 기념촬영 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 제26회 학위수여식

차이나에이드 푸 회장에 명예박사 등 총48명에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총장 제임스 송 박사)가 지난 22일 정전경박사 기념세션센터에서 Dr. Earl Haskins 이사의 사회로 2012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미조리 수 하원의원인 Lindell Shumake의 메시지와 백악관 국제 종교자유와 인권담당 보좌관인 Dr. Scott Flipse, 타임 매거진 편집장 Dr. David Aikman, America Min-

ute회장 William J. Federer, 미주리 하원의원 Chuck Gatschenberger의 축사가 있었으며 한국 기독교 기념세션센터 이사장 강병훈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번 졸업생은 학사학위 9명, 석사학위 27명, D.Min(삼당전공 1명, 기독교교육전공 1명, 교회음악전공 4명, 선교전공 4명, 목회학전공 1명), 명예박사학위 1명 등 총 48명이 학위를 받았다.

목회서신

다윗과 골리앗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도망을 하는가 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키만 보더라도 3m 가까운 구적장신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에 주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몸에 갑옷을 들었고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부터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들어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신앙은 삼상17:47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러한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편이 전쟁에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다윗이었기에 골리앗도 더 이상 두려움

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이 당당히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고 싶다면 매일같이 두려움과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싸워볼 생각을 해보지 못한 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탐하도록 파송 받았던 열 사람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같이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열 명의 정탐꾼들은 환경만을 보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골리앗과 같은 환경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은 어떠한 전쟁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백번 싸워서 백번 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만 바라보며 지레 겁을 먹는다면 죽었다 깨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3>기쁨과 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정희수 교목사: 케미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회: 오후 7:00 시계기도회: 오후 8:00(월-토) 오후 8:30(일)</p> <p>Tel: (718) 259-7888, 468, (646) 679-8771 41-44 26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andglory@icbc.com</p>				<h3>낙원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45</p> <p>Tel: (718) 628-7788, (917) 638-8881 44-29 Queens Ave., Queens, NY 11104 E-mail: lachurch@icbc.org</p>			
<h3>뉴욕셋째마태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00</p> <p>Tel: (718) 484-2282, (718) 484-2283, (718) 484-2284 41-75 Flushing Blvd., Flushing, NY 11355 www.setthelamb.com</p>	<h3>뉴욕중앙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새가족회: 오후 8:00 시계기도회: 오후 8:45</p> <p>Tel: (718) 484-6100, Fax: (718) 484-6101 40-26 66th Ave., Queens, NY 11104 www.nyccentral.org</p>	<h3>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택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월-토) 새가족회: 오후 8:00(일)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718) 484-1877, Fax: (718) 484-1881 2 Beacon Hill Blvd., Flushing, NY 11350</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전 8:30</p> <p>Tel: (718) 484-2810, Fax: (718) 484-3411 48-8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csaram.org</p>	<h3>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h3> <p>담임목사: 이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월-토) 오후 8:00(일)</p> <p>Tel: (718) 484-7828, Fax: (718) 484-7777 48-8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icbc.org</p>	<h3>뉴욕중부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전 8:45(월-토)</p> <p>Tel: (718) 484-7828, Fax: (718) 484-7777 48-8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cchurch.org</p>						
<h3>뉴욕효신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락 1부일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후 10:15 4부예배: 오후 12:3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8부예배: 오후 8:30 새가족회: 시계 8:00(월-토)</p> <p>Tel: (718) 782-4758, 2525, Fax: (718) 782-3111 42-15 150th St., Flushing, NY 11355</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새가족회: 오후 8:00(월-토) 시계기도회: 오후 8:00(일)</p> <p>Tel: (718) 484-6100, Fax: (718) 484-6101 40-26 66th Ave., Queens, NY 11104 www.nyccentral.org</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학교: 오후 8: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 484-1271, Fax: (718) 484-3411 37-87 134 St., Flushing, NY 11358</p>	<h3>풍아일랜드성결교회</h3> <p>담임목사: 김혁명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8:45 수요학교: 오후 8: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전 8:30</p> <p>Tel: (718) 484-1977, Fax: (718) 484-3411 360 Edison Ave., Westbury, NY 11591</p>	<h3>메디나교회</h3> <p>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월-토) 오후 8:00(일)</p> <p>Tel: (718) 484-3860, Fax: (718) 484-3860 48-24 162 St., Flushing, NY 11358 E-mail: medina@icbc.com</p>	<h3>어린양교회</h3> <p>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00(월-토) 오후 8:30(일)</p> <p>Tel: (718) 484-4328, Fax: (718) 484-3437 48-1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3>유니온연합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재철 1부 기도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0:45 3부 예배: 오후 2:30 4부 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전 8:00</p> <p>Tel: (718) 484-0444, (917) 638-8881 48 St. Grand Ave., Queens, NY 11104 E-mail: lachurch@icbc.org</p>					
<h3>주비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가족회: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시계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 782-4758, Fax: (718) 782-3111 78 Flushing Rd., Flushing, NY 11355</p>	<h3>주신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용익 주일1부예배: 오전 12: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8:30</p> <p>Tel: (718) 484-7041, 7042 188-12 72 Ave., Fresh Meadows, NY 11366</p>	<h3>중부뉴저지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현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 484-0444, Fax: (718) 484-3437 445 One First Road Edison, NJ 08817</p>	<h3>핀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2:30</p> <p>Tel: (718) 484-4041, Fax: (718) 484-7782 149-17 Fresh Meadows, Flushing, NY 11355 www.icbc.org</p>	<h3>핀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 484-7150 48-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70 www.icbc.org</p>	<h3>한미음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재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가족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전 8:30(월-토) 오후 8:00(일)</p> <p>Tel: (718) 484-7150, Fax: (718) 484-3437 78 Flushing Rd., Flushing, NY 11355 E-mail: hamicbc@icbc.com</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LA: Tel: (323) 995-0709 2부 후원교회: 오전 8:30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3> <p>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8:45</p> <p>Tel: (202) 777-1486, Fax: (202) 777-1487 Rue Josephine Plaza, 281 Cambridge 2, Puerto Cap 01028-2910</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8:00</p> <p>Tel: 011-55-11-3279-8223, 3277-5261 R. Linsde Alves W Lins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새사망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8:00</p> <p>Tel: (55) 11-9988-8774, 9882-1188 RUA SANTA CRUZ, 281-PARQUE SÃO PAULO-SP-BRASIL</p>	<h3>아르헨티나 제임교회</h3> <p>담임목사: 최병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8:00 시계기도회: 오후 8:00</p> <p>Tel: (54) 011-4-837-1758 AV. CALABAZO 1353 CAP.FED., B.R. A.R.,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회: 오후 8:00 시계기도회: 오전 8:00(월-토) 오후 8:30(일)</p> <p>Tel & Fax: (56) 2-2558-7626, (56) 2-2558-8389 Santiago Curvo - 7 Casilla 35 Chile</p>	<h3>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3> <p>선교사: 임병관 목사 파라과이선교본부 회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1, 2, 3, 4부 예배)</p> <p>Tel: (596) 127-574-896 E-mail: hch@hch.org Carverton MO, 1301, Anacón-PARAGUAY</p>						

동부교계 게시판



부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M. Div)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이중언어 설교자.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학력증명서, 설교CD 2개, 목사추천서(2인)가 필요하다. 제출마감은 7월 31일. 이메일 yspcpastor@gmail.com
 ▲문의: (215)542-0288/김대호 목사

무료 청소년 여름캠프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부설 필그림하우스가 주최하는 무료 청소년 여름캠프가 오는 7월 16일부터 2주간 동안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필그림하우스(256 Broad Ave, 2F)에서 열린다. 주제는 자아성장과 관계세우기이며 수업은 영어 한국어로 진행된다.
 ▲문의: (201)461-0909

닉 부이치치 초청집회

뉴욕/뉴저지 밀알선교단이 주최하는 닉 부이치치 초청집회 "Love Without Limits"가 8월 4일(토)과 5일(주)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열린다. 일정은 △뉴욕/퀸즈한인교회 오후 7시 △뉴저지/Felician College 오후 5시. 동시통역으로 이뤄지며 티켓은 일반석 20달러, 특별석 50달러.
 ▲문의: (718)445-4442, (201)530-0355

말씀콘서트

뉴욕한민교회(담임 주영광 목사)가 지난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말씀콘서트'를 갖는다. 강사는 주영광 담임목사.
 ▲문의: (718)428-9191, 0959

선교후원 골프대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도미니카와 아이티 선교활동 지원을 위해 7월 2일(월) 정오에 골프대회(준비위원장 박종규 장로)를 개최한다. 동 교회는 7월 23일부터 8월2일까지 도미니카와 아이티에 단기선교팀 30명을 파송한다.
 ▲문의: (917)923-9660

미주여성목회자협 신임회장 이미선 목사 '21세기 여성목회자리더십' 주제로 정기총회 개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김금옥 목사)가 지난 18일 스톤리 포인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이미선 목사, 부회장에 전희수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이미선 목사는 "더욱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상호간의 영성과 지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의 여성 교역자들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회장을 역임한 김금옥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한 모든 임원들께도 감사를 드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의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다"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의가 여성 목회자들 간의 연합활동에 가치를 더욱 드러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전희수 목사는 '연합의 비밀'(전4:9-12)이라는 제

목으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삼겹줄과 같이 하나 돼 서로 협력하는 단체로 발전해야 한다"며 "혼자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연합할 때 강한 힘이 발휘된다"고 전했다. 총회 후에는 '21세기 여성 목회자리더십'이라는 주제로 4차 오픈컨퍼런스가 진행됐다. 강사로 참여한 김부의 목사는 '21세기 여성 목회자리더십', "'Sharing & Wrapping Up'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직전회장 김금옥 목사는 '성직자의 성적비행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의는 미주지역 여성 목회자들의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했으며 세계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의의 미주지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미스바대회 되게!"

2012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3차 준비기도회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12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제 3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6일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주최로 뉴욕행복한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대회장 양승호 목사는 "제 38회기가 할렐루야대회를 잘 치르려면 마치고 있다. '시예를 집회 중인 감사 이태희 목사가 '생명 걸고 말씀 전하겠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또 후원금 지원도 당부했다. 총무 이희선 목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교회를 순회하며 실무회의를 갖고 있다. 현재 3만여 달러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어린 이태희는 마지막 날 성인대회에 조인해서 찬양하고 축복기도 받는 시간을 계획했다고 소개했다. 1부 예배는 이성현 목사 사회로 기도 환규복 장로, 성경봉독 장경혜 목사, 설교 김종덕 목사, 특별통성기도, 광고 이희선 목사, 축도 김성기 목사, 광고 이희선 목사, 축도 김성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덕 목사는 "미스바로 모이자"(삼상7:5-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제가 6.25전쟁 62주년이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밥이 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가? 오늘 기도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회개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게 됐다"며 "이번 복음화대회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미스바대회가 되게 함으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할렐루야대회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별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장재웅 목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최요셉 목사 △할렐루야2012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강사와 준비위원, 참석인원, 날씨, 안전사고, 후원을 위하여 제목으로 기도했다. 마지막 준비기도회는 7월 2일(월)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청교도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교도 복음사상", "청교도 가정생활"

제2회 청교도복음연구회세미나, 김필식 목사 유경옥 전도사

청교도복음연구회(회장 김필식 목사)와 청교도복음가정사역원(원장 유경옥 전도사) 주최로 열린 제2회 청교도 복음연구회 세미나가 지난 22일 영림교회에서 열려 김필식 목사와 유경옥 전도사의 강의를 열렸다. 김필식 목사는 "청교도 복음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리처드 십스의 은혜론'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저자 십스 목사는 "삼차받은 심령을 회복시킴으로서 힘을 얻은 것을 깨닫게 하는 실천적 설교자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을 경책하기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며 "이민 목회에서 꼭 필요한 위로 목회"임을 강조했다. 유경옥 전도사는 "청교도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성경적 결혼관 확립과 은혜 나누기'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세미나를 열었다. 유 전도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의미(언약과 은혜) △성도

와 그리스도=신부와 신랑(영과 육의 가장 친밀한 관계) △성경속 결혼의 절차와 구원의 서적과의 관계 △청교도 결혼과정(현실의 삶과 신비한 천국 비밀의 조화)의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현대 기독교 가정사역이 너무 심리학에 심취돼 있다"며 "근본적인 하나님의 결혼관, 가정관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유경옥 전도사의 강의는 24일과 7월1일 2주에 걸쳐 새생명선교교회(담임 장숙희 목사)에서 계속됐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창종 목사(뉴욕 동서교회 담임) 사회로 기도 김기환 목사, 성경봉독 고요한 목사, 설교 최기성 목사("주를 위하여: 청교도의 삶", 롬14:7-12), 축도 윤성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세미나에 앞서 박요셉 교수의 특송이 있었다. 한편 유경옥 전도사는 "연평도"라는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7월 3, 4일/퀸즈장로교회). 작품 수익금은 미주크리스천신문과 영림교회를 후원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

대뉴욕지구 원로목사회(회장: 이성철 목사) 6월 월례예배가 지난 19일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초청으로 동 교회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용해 목사의 사회로 이수산 목사의 기도 후 김승희 목사가 설교했다. 김승희 목사는 "선교적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뉴욕초대교회가 개척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

서 주신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도미니카공화국에 선교센터와 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선교적 사명을 실천한 결과임을 증명했다. 예배 후에는 뉴욕초대교회에서 정성스레 마련한 푸짐한 오찬을 나누면서 회원 간의 돈독한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영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록교생활개역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채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단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노우고라 스타가게 뉴욕교향식당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전화: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647-9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ssaic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ADVERTISED BY adidas HENTON MO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입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제32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교회연합체육대회 종합우승 서문교회, 준우승 은혜한인교회

제32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주관한 교회연합 체육대회가 23일 벨리크리스천 스쿨에서 성황리에 열려 서문교회가 영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은혜한인교회가 준우승, 그리고 남가주사랑의교회가 3위를 차지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와 OC한인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청년부 배구 종목은 2007-2010년 연속 4회 우승을 기록한 OC한미교회가, 장년부에서는 서문장로교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축구종목은 작년에 이어 갖스



제32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교회연합 체육대회가 벨리크리스천 스쿨에서 열렸다. 사진은 은혜한인교회와 베델한인교회의 배구경기 모습

비전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청년부 농구대회와 유

소년 축구대회도 인기를 모았다. 청년부 농구는 은혜한인교회가, 유소년 축구대회는 남가주사랑의교회가 각각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베델한인교회, OC제일장로교회, OC한미교회, 갓스비전교회, 두나미스교회, 뉴라이프선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OC한인교회, 서문장로교회 등이 참가했다. 또한 어린이 사생대회도 함께 열리기도 했다. 손찬우 회장은 "화창한 날씨 속에 10개 교회들이 참가해서 체육대회를 갖게 됐다. 특히 유소년 축구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농구종목이 추가돼 반응이 무척 좋았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화합된 교회들의 한마당으로 이어지는 체육대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처치리더사역팀 주관 이필찬 교수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기쁨의교회에서 열렸다

“계시록은 승리 확신주고 위로 주는 책” 이필찬 교수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요한계시록” 강의

처치리더 사역팀은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강의를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이필찬 교수(전 한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첫날 저녁 '영적전투의 현장'(계 12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인도한 이필찬 교수는 "12장에는 용과 미가엘, 여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오는데 용은 이들과 적대적 관계를 이룬다. 여기서 나온 용은 9절에 마귀 옛 뱀 사탄이라고 해석되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사탄이 저지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이라 설명하며 "사탄이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원천 봉쇄하려고 한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천국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가 도래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

해 그 제한이 풀려졌다"고 말했다. 또 "7-12절에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탄의 전투가 벌어진다. 이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 9절은 전쟁의 결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은 사탄이 하늘에 있었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까지 사탄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참소해왔다. 사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는 십자가 사건의 결과"라며 "계시록은 1세기 성도들에게 신앙적 위기 속에서 황제숭배를 수용하지 않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가치 있기에 그 믿음을 걸고 살아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줄타기를 할 때가 있다. 매순간 몸부림치고 있지만 순간 정신을 놓을 때가 있다. 그리고 후회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픔을 가지곤 한다. 계시록은 승리의 확신을 주고 위로를 준다. 이 위로를 받고 격려와 도전받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극동성가단의 제15회 정기연주회가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제15회 극동성가단 정기연주회

극동성가단(단장 황성욱)이 지난 24일 저녁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황성욱 극동성가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극동성가단은 각 개인의 목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목소리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각 단원의 마음중심에 계시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양보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저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전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 영원히 노래하며', '사랑해요 주님', '내 주께로 돌아가라',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있으니' 등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해 이날 모인 청중들의 마음을 댄스하게 했다. 또한 테너 오우영 목사, 소프라노 조현주의 특성과 조지현의 리코더 특주 및 테너 황호진과 클라리넷 연주가 곁들여져 이날 연주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날 연주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를 마지막 곡으로 부른 후 류당열 목사(미주대신학대학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SBS스타킹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테너 김승일씨의 연주회가 나성금관교회에서 열렸다

나성금관교회, 테너 김승일 초대음악회

나성금관교회(담임 윤선식 목사)는 테너 김승일의 초대 음악회를 23일 저녁 7시30분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나침반교회 입당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가 7월 1일(주) 오후 4시 브레아 지역(1200 West Lamber Rd, Brea)에 새롭게 성전을 마련하고 입당예배를 드린다. 이날 설교는 OC교협 회장 엄영민목사가 맡는다.
▲문의: (562)691-0691, (714)595-3927

샌버나디노지역 연합 VBS
오는 7월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샌버나디노 지역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VBS)가 장대교회(담임 이춘준 목사)에서 열린다. 대상은 킨더가튼부터 6학년까지이고 2박3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는 물론 태권도, 수영, 만들기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문의: (213)458-1833(권철균 목사)

제5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는 장학생 선발을 실시한다. 대상은 LA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생과 선교사, 목회자 자녀 및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장학생 등이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facebook group 'Gran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2'에서 다운), 본인에게 이(편지지 2장 이하분량), 증빙서류 등이며 7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323)667-9920

찬양사역자 강명식 콘서트
강명식과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찬양, 회복, 승리라는 주제로 △29일(금) 저녁 7시45분 사랑의빛선교회, △30일(토)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오후 6시30분 △7월 1일(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213)505-3900

한류문화선교회 한류비전콘서트
한류 문화선교사 조효성 목사가 이끄는 '한류문화선교회'(Korean Wave Jesus Movement·KWJM)가 남가주와 라스베가스 등 서부 지역에서 10차례의 '한류비전 콘서트'가 오는 7월3일(화) 오후 7시 풀러튼 하워드 존슨 호텔(222 West Houston Ave.)을 시작으로 LA, OC, 샌디에고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 문의: (201)658-0205

김승일 씨는 "한국 최고의 음대중 하나인 한양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경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성악가가 되고자 한 꿈을 접고 생업에 뛰어들어 배달업은 물론 각종 다단계업까지 다양한 직종의 일을 경험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더군다나 부모님을 여의게 되는 등 우환이 겹쳐 낙심하게 됐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있었지만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 힘이었으며 그것은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야식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우연히 핸드폰에 녹음을 한 내 노래를 야식배달업 사장님이 들으신 것이 계기가 돼 1년 전 S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성악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날 집회는 'You raise me up', '그리운 금강산', 'Nessun Dorma' 등을 불렀고 앵콜 곡으로 '내영혼의 그윽한 깊은데서'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에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자가 영혼 확신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스 건너길)
Tel. 213.487.5446 Cell. 213.683.9161 Email, leg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s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배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볼펜수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코스모폴리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열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기독교 대안학교의 고민

‘정규 학력 인정이나 기독교 정신 고수인가’ 최근 기독교 대안학교가 크게 늘면서 학교의 법적 지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모두 121곳. 일반 대안학교 114곳을 웃돌았다.

문제는 이들 중 83.5%가 미인가라는 점이다. ‘미인가=학력 불인정’이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의 고충도 상당하다.

24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기교연)가 발표한 ‘제2회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이상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의 77.4%가 학교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이유로 학력 인정 및 학생들의 진로, 안정적인 교육환경 등을 들었다.

그러나 22.6%는 정규 학교로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엇보다 기독교 설립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

미인가는 학력 인정 못 받고 정규학교 되면 기독교 설립정신 훼손 우려

기 때문이다.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 등을 받을 경우 학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간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전체
101개	11개	5개	4개	121개
83.5%	9.1%	4.1%	3.3%	100.0%

(출처: 2011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

이에 따라 상당수 기독교 대안학교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아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대안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절충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독교 대안학교 등과 관련된 법령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상진 기교연 소장은 “인가를 받으면 법적 지위를 얻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기독교적 대안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2006년 이전 59곳에 불과했으나 2007년 12곳 등 최근까지 매년 10여곳 이상 늘어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설립 지역 역시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도시형 기독교 대안학교 신식이 많았던 게 특징이라고 기교연은 설명했다.

한국복음주의신대협, 종자연 종교편향 결의

[미션라이프] 국내 28개 신학대학교가 가입된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한복신협·회장 최성규 총장)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종교 편향 활동을 규탄하는 등 한국교회 현안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복신협은 25일 “최근 개최한 한국교회 교단장과 총장 간 대화모임에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아세운 종자연은 종교편향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복신협은 결의문에서 ‘모든 정부행사와 교회행사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야 하며 이슬람교의 확장현상에 대해 한국교회가 대처방안

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체는 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반드시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돼야 하며, 새로운 연합단체는 교단·단체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정치·보단 정책·실천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종자연 특위’ 구성 종교편향 조사 강력 대처기로

불교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이 단체에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을 준 국가인권위원회

에 대해 교계가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9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사무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종자연의 한국교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종자연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국가인권위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만약 국가인권위가 특정 종교 단체임을 알고도 종자연에 용역을 주었다면 이것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비윤리적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국가인권위가 기독교계와 종자연과의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

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 종자연에 대해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해 온 불교단체”라고 못 박았다.

한기총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총현교회 담임목사직 승계 등 ‘교회 승계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신학적인 검토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기총은 특히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설명 등 ‘한국교계 지도자 음해의 건’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대처 방안 등을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 한기총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션라이프] 지금도 생물은 진화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많은 과학자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 대답의 내용은 수많은 진화 관련 저서로 발간돼 소개됐다. 이런 현상은 과학교과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만 정설(진리)처럼 기술하고 학생에게 가르친다. 초월적 지성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소개조차 못하도록 교육법으로 철저히 규제한다.

이런 가운데 ‘진화론의 패배’라고 기록된 만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대표 이광원)의 교육과학기술부 청원도 ‘시조새’, ‘말의 진화’ 등 국내 과학교과서의 진화론 내용 중 일부가 삭제 또는 수정된 것이다.

회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소송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번번이 고배를 마신 교계조차 놀란 결과물이다.

하지만 일반의 반응은 싸늘했다. 교과서 발행사들이 진화론과 관련

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화학계는 “학문의 흐름을 왜곡한 것”이라며 교과서 삭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냈다.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최근 한국의 진화론 반대론자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 포털인 ‘레딧세계뉴스’는 ‘한국 창조론자에 굴복’이라는 기사에서 고교

‘시조새’, ‘말의 진화’ 삭제...세계 이목 집중 ‘진화론은 비과학, 유물주의 기초한 범신론사상’

과학교과서가 진화의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8일 ‘과학까지 넘보는 기독교 창조론’이란 사설에서 “신화를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믿음을 증거라고 들이대선 안 된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지난 15일 자엔 한 판을 털어 “교과부의 안이한 대응이 파문을 불렀다”는 분석을 하고 기독교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아메바에서 동물과 식물,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이를 과학자들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주장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이 원숭이 고릴라의 진화를 거쳐 탄생했다’는 그들의 주장. 또 새와 비슷하게 생긴 화석 하나가 시조새로 둔갑해 모든 새들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가?

2009년 설립된 교진추는 과학적

들이 ‘종교가 과학을 간섭하려 한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진화론자들이 ‘시조새’나 ‘말의 진화’ 등 진화론 오류와 학술 논쟁을 감추고자 하는 ‘전형적인 몰타기 수법’이라는 것이다.

심인구 교진추 연구부장은 “진화론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이유가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들의 공격(?) 때문이라는 듯한 마녀사냥만 안 했으면 한다”며 “진화론이 정말 과학이라면 교진추의 반론에 대해 학문적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변삼 서울장신대 외래교수는 “주지하듯이 자연과학은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으로 구성돼 있다”며 “실험과학은 실험적으로 입증되므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원 분야다. 여기에는 창조-진화의 두 해석 체계가 오랜 세월 대립해 왔다. 따라서 두 이론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화학계는 “학문의 흐름을 왜곡한 것”이라며 교과서 삭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냈다.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최근 한국의 진화론 반대론자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 포털인 ‘레딧세계뉴스’는 ‘한국 창조론자에 굴복’이라는 기사에서 고교

기감 정상화 첫발...총회갖고 활로 모색

제29회 총회, 82.6% 참석율 9월 감독회장 선출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수년째 표류해 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교단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뒀다.

기감 총회(임시감독회장 김기택)는 26일 경기 성남시 복정동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제29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08년 10월 제28회 총회가 무기한 연기된 뒤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정식 총회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기감의 총회대의원(총대) 1319명 중 1090명(82.6%)이 참석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자.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라며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게 손해되는 쪽을 선택하자”고 말했다.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교단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배려와 희생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9회기(2010.10-2012.10)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그동안 미뤄진 교단 연회감독 취임과 교단신학교 총장 인준 등 행정적 업무들이 대부분 처리됐다. 차기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조직도 정비했는데 이는 교단 정상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감 총회는 오는 8월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쳐 9월 차기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10월에 열리는 제30회 총회에서 신임 감독회장을 인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초 조직돼 선거법 시행세칙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임명 의회의 개최 여부는 내달 6일 개최 예정인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론내기로 했다. 임명위원회는 감독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유지할지, 손

질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태다.

기감 총회는 2008년 제28회 총회에서 후보의 법적 자격 시비로 감독회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5명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임시 감독회장이 번갈아 들어서는 등 혼란을 빚어왔다.

한국 중국 기독교 지도자 교류회 좌담회

한·중 교회 지도자들은 2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한·중 기독교 지도자 교류회 좌담회’를 갖고 양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나누고 미래 전망을 모색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좌담회에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밝힌 과제는 ‘교회가 영광과 성공으로 배려와 희생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9회기(2010.10-2012.10)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그동안 미뤄진 교단 연회감독 취임과 교단신학교 총장 인준 등 행정적 업무들이 대부분 처리됐다. 차기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조직도 정비했는데 이는 교단 정상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감 총회는 오는 8월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쳐 9월 차기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10월에 열리는 제30회 총회에서 신임 감독회장을 인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초 조직돼 선거법 시행세칙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임명 의회의 개최 여부는 내달 6일 개최 예정인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론내기로 했다. 임명위원회는 감독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유지할지, 손

질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태다. 기감 총회는 2008년 제28회 총회에서 후보의 법적 자격 시비로 감독회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5명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임시 감독회장이 번갈아 들어서는 등 혼란을 빚어왔다. 한국 중국 기독교 지도자 교류회 좌담회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좌담회에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밝힌 과제는 ‘교회가 영광과 성공으로 배려와 희생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9회기(2010.10-2012.10)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그동안 미뤄진 교단 연회감독 취임과 교단신학교 총장 인준 등 행정적 업무들이 대부분 처리됐다. 차기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조직도 정비했는데 이는 교단 정상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정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4파전’

정평수·황원택·이태선·안명환 목사 출사표

예정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은 최근 선거후보 마감결과 4명의 목회자가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총회장 후보자는 정평수(성남 만남의교회) 황원택(서울 신장교회) 이태선(의정부 승리교회) 안명환(수원 명성교회) 목사다. 이들 4명의 목회자는 모두 서울서북지역 소속으로 지난 4월 마무리된 노회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후보 등록과 함께 8750만원의 총회발전기금을 납부했다.

당선자는 오는 9월 대구성명교회에서 열리는 제97회 총회에서 제비뽑기 선거로 가려진다. 총회장 후보는 현 부총회장인 정준모(성명교회) 목사가 등록했다.

정평수 목사는 정치부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총신대 운영이사를 맡고 있다. 황원택 목사는 정치부장과 교육부장, 총신대 운영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태선 목사는 총회 부회목서기와 회회목서기를 역임했으며, 총회유지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명환 목사는 정치부장과 총회세계선교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신대 재단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호남 중부지역에서 추천을 받은 남상훈(삼태동부교회) 정화웅(이리양교회) 장로가 출마했다. 서기에는 김형국(대구 하양교회)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부서기에는 김성원(광주중흥교회) 김영남(인천세소망교회) 김인기(성장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활기칩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흥을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영광찬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흥기도, 찬양의 초대, 찬화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예배(영광찬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재광강해, 본론, 주석, 상행, 기타)
-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위한 영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안영예)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안영예)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광찬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흥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여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8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CDC예배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배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을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세이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드립니다.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선교 전문가)

이슬람 세계는 항상 다이나믹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급주 주요한 이슬람 동향 뉴스를 요약하면,

- 1) 시리아는 내전상태로 돌입하고 있으며 2)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치러진 이집트 대통령 결선투표는 무슬림 형제단의 모르시 후보와 과거 정권의 수상을 지낸 사피아가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건강위기가 이집트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한다.
- 3) 지난 주 중요한 이슬람 뉴스로는 사우디 왕세자가 죽었다는 뉴스이다. 이미 장례식을 치렀는데, 왕세자란 현왕이 사망하면 왕을 계승하는 자리이다. 살무만 국방장관이 왕세자로 곧 지명되었다.
- 4) 사우디에서는 왕세자가 사망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운동자들이 여성에게도 운전하게 해 달라고 데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데모한 남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자신들이 엄한 벌을 받았다. 귀추가 주목된다. 사우디는 금년도 올림픽에도 여자는 출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 5) 바레인 법원은 작년도 데모 때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한 의사 9명에게 1년에서 수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국제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그런데 바레인 수니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의사들은 대부분 시아파 무슬림들이다.
- 6) 이슬람 테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교회가 과격 무슬림들의 테러를 당하였다.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일부 일본학자들은 원인을 이슬람 교리에서 보다는 국제정치, 사회 외적 원인으로 돌리면서 이슬람을 좋게 말한다.
- 7) 6월 20일 프랑스에서는 알카에다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테러리스트가 은행에서 인질사태를 벌여 프랑스가 시끄럽다.

1. 미얀마 사태: 나라도 땅도 없는 로힝야 백성들

지난 주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는 유창한 영어로 노벨상 수상 연설을 하였다. 연설에서 미얀마의 인종, 종교 갈등을 언급하면서 하나가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교도들과 무슬림들의 충돌로 3만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 사태는 민주화와 개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얀마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후진국의 비극은 독재와 혼란이라는 양극단 있고 중간이 어렵다. 민주화는 꼭 필요한데, 그러나 독재이후 민주화는 도리어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기가 일수이다. 한국은 4.19이후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 현

팅론은 이슬람과 기독교적 서구의 충돌을 강조하였지 아시아에서 불교와 이슬람, 힌두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 같다.

2. 나이지리아 교회 공격: 아랍뉴스의 보도



파키스탄에서 훼손당한 교인들 공동묘지

지난 18일 영국 BBC와 미국 CNN은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나이지리아에서 또 기독교회를 공격 1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물론 일본 방송도 보도하고 아사히신문도 기독교 신자들이 당한 것으로만 보도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발행되는 Arab News 뉴스는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 보코하람 그룹이 교회를 공격, 신도들이 죽자 기독교인들을 보복을 단행, 버스에 탄 무슬림들을 무차별 살해해 길거리에 많은 무슬림들이 밧줄고 있다고 보도해 기독교인들이 무차별하게 보복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의 일부 언론도 아랍뉴스처럼 많은 무슬림들도 죽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21일 아침 프놈펜 포스트지는 이 충돌이 확대돼 보코하람 테러리스트들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까지 무차별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 이 충돌로 많은 수가 죽었다고 보도한다. 나이지리아 남부는 기독교인들과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북쪽은 무슬림이 다수이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와 무슬림의 충돌이 심각하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보복할 만한 힘이 전혀 없어 당하고만 있다. 지난주 파키스탄에서도 교회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신자들은 보복은 엄두도 못낸다.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 신자들과 이슬람의 이단으로 정죄 받은 아하마디 신자들의 공동묘지가 과격 무슬림들에 의해 크게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수니파 테러리스트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시아파를 공격, 30명이 죽고 수 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나 테러가 발생했다. 이러한 테러가 이라크에서 계속되고 있다.

3. "이슬람은 이교도들을 공격하라는 교리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일본인 이슬람 전문가 나이토 마사노리(内藤正典)는 저서 "이슬람 전쟁의 시대(イス람 戦争の時代)"에서 사람들은 이슬람을 오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이교도의 섬멸을 시도하려고 가르쳐서 오늘날과 같이 폭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은 이교도와 공존의 가능성을 가르치는 것은 있지만, 섬멸을 설교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 12억 혹은 13억의 무슬림들이 전 세계 이슬람화를 노리거나, 개종이 아니면 싸움을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슬람은 기독교나 유대교에 대하여 전쟁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신학자 앤드류 커크(Andrew Kirk)는 최근 저서 Civilizations in Conflict : Islam, the West and Christian Faith(2012)에서 무함마드는 폭력을 동원하는 지하드를 가르쳤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코란을 인용하면서 "지하드는 신이 세운 것으로, 이슬람의 전진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다. 무슬림은 필요하면 신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죽는다"(75). 커크가 소개한 코란의 일부를 인용하면 1)코란 3.85,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2)코란 4.95, "아무런 장애 없이 남아있는 믿는 자와 성전에 출전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투사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이들에게는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3)코란 8.39,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4)코란 9.5,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 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4. 석유와 이슬람을 수출하는 사우디

4. 석유와 이슬람을 수출하는 사우디

사우디는 석유와 이슬람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한국에 온 무슬림 선교사들은 사우디로부터 선교비를 받는다. 예를 들면, 4년 전 한남동 이슬람 책방에 근무한 자는 이집트 출신 무슬림인데, 후원은 사우디로부터 받다고 했다. 혹자에 의하면 사우디는 매일 수출하는 석유수입의 1/4이 이슬람 선교비로 쓰여진다고 한다. 이것은 천문학적 돈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수출하는 이슬람은 와하비 이슬람원리주의이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20세기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이 원조라고 하지만 19세기에 이미 일어난 와하비가 원조이다. 사우도 왕조는 무서운 와하비주의와 사우도 추장의 칼리 결합한 것이다. 사우디는 국내에서 과격 원리주의 집단을 철저히 억압하면서 동시에 테러를 키우는 나라이다. 일본 이슬람 전문가 미야타 오사무에 의하면 파키스탄에는 13,000개의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사 있는데, 이 학교의 상당수가 탈레반을 키우며 마드라사 자금은 사우디에서 온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종교탄압 1등 국가이다.

나이프 왕세자는 어떤 인물인가? 사우디는 8명의 힘 있는 왕자들이 장관자리를 차지하여 나라를 주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사망한 왕세자 나이프는 40년 간 내무부장관 겸 정보부장을 겸직하면서 내부의 모든 데모를 차단, 아랍의 봄이 사우디에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135,000명의 사병을 거느리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리고 빈 라덴의 알카에다와 급진 과격무슬림들을 철저히 탄압했다. 시아파 무슬림들이 종종 데모하지만 철저히 탄압했다.

5. 천억달러의 수쿠크(sukuk) 자금 세계 경제원조

다음 내용은 2012년 6월 18일 아랍뉴스에 나온 간추린 기사이다. 수쿠크 자금은 종교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은 이 자금을 철저히 사리아와 이슬람 종교에 기초한 것임을 사우디 최고 금융지도자가 밝혔다. Khalil Hanware라는 기자와 대담한 Abdulrazzak M. Elkhrayij는 사우디의 금융계 거목이다. 특히 이슬람 금융의 전문가이다. 그는 미국 미네소타 주 Macalester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NCB 이슬람은행개발그룹 부회장이다.

선교지 편

제27기 런던 사모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동안 기도의 동역을 힘입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았습니다. 중보로 많은 힘을 얻게 하신 동역자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있을 '런던 사모교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사모교실이 두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영국 런던은 1980년대에 저의 온 가족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온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목회 7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되어 런던에서 1년 동안 고인과 함께 한인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한 고인이 떠난 이후 25년 만에 다시 영국 땅을 밟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인은 이미 떠나고 없지만 저에게 주신 사모사역에 대한 꿈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젊고 또 젊어 기억속에서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어린 사모의 작은 꿈이 많은 세월이 흘러간 이후 후임으로 섬기시는 김호근 목사님께서 20여년간 희생과 인내로 섬기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런던 웨이브리지 선교센터) 사모교실을 또 열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로 왕으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맞는 풍량이 너무 컸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던 작은 희망을 하나님은 아주 값싸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2011년 10월)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선교센터를 런던 땅에다 준비해 놓으실 줄이야! 감격 그 이상이었습니.

다른 나라에 계시는 사모님들을 위해 준비하려고 영국은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가라고 하십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사모교실 이후 장순영 사모(김호근 목사의 아내)의 희생과 헌신의 따름으로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런던 사모기도모임이 창설되었고 이 모임이 주선하여 또 다시 2기 사모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금년은 특히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사모교실이 바로 그 주간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영성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악한 영들의 기승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 기간에 사모님들의 영성을 다듬어 주시길 하나님의 계획이 솟아 있습니다. 사모행전을 주관하시는 우메리 사모(하와이안디옥교회 우동식 목사의 아내)님과 함께 사모님들을 섬기게 됩니다. 후방에서 기도로 뺨뺨하게 밀어주시는 여러 기도의 동역을 힘입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도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기도제목
1. 올림픽 기간에 있을 사모교실과 선교사부부축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2. 강사들과 참석하실 모든 분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완전 무장하도록
 3. 참석예정자 30여명의 사모님들을 방해하는 세력들(가정과 교회)을 물리쳐 주시도록
 4. 강사(황순원 선교사, 메리우 사모)들에게 영육간 강건하도록
 5. 강사와 참석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 CMF 사모선교원장 황순원 순회선교사
▲연락처(213)703-0769/(972)481-1004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긴밀한 연관에 새롭게 종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전송기,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HIS media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묵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율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가엘 반주기

Hit상품 미주총판

미공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최저가격 보장

주문처 HALLELUJAH BOOKS, Inc.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88, 888, 888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8)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나는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가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며 겪은 일들이 순간순간 떠올라 가슴이 벅차오른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고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커가는 아이들이 나를 웃게 한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희생이 아닌 행복이자 감사였다.

그때는 아이들 아침 준비에 학교 보낼 준비, 남편 도시락 준비, 아이들의 방과 후 특별활동, 장보기, 빨래하기 등의 집안일과 운전으로 실 새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지칠 만도 했을 강릉군이였다. 그래서였는지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다. 1년에 보통 2만5천마일 정도를 운전했는데 그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내 기도를 들 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것이리라.

두 아들이 각각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었을 때 남편이 하루는 저녁 7시에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주립 대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게 되었다. 특히 겨울이면 시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는데, 밤 10 시경에 강의를 마친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아찔함 그 자체였다. 도로에 잔뜩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었는데 하필이면 그 고속도로에는 가로등도 하나 없었다. 모든 차가 자기 헤드라이트에만 의존해야 하니 앞차를 잘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앞에 차가 없으면 천천히 운전하다가 큰 트럭이 오면 그 뒤에 바짝 붙어 뒤따라가곤 했다. 30분을 그렇게 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길옆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쉬면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차를 세우자 자고 있던 남편은(남편은 늘 그러듯 내가 운전하면 잔다) "다 온 거야?"라고 물었다. 그때는 차라리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못 보고 편히 지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 었나 싶다. 그래서인지 운전대를 잡으면 어김없이 기도가 나온다. "오늘도 모든 일정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품 안에서 기를 때가 실은 모든 부모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가. 하지만 나는 그것이 여자로 태어나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하늘에서 받는 축복 중 가장 높은 축복이라고 믿는다. 아찔한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다. 엄마는 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런 엄마가 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겠지만 심대 때는 폭풍처럼 모든 것이 견잡을 수 없고 혼란스럽다. 이 시기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단 한행이라도 자신의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코 아이들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종종 심대 청소년의 비행으로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한다. 나의 두 아들이 이토록 사랑스럽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양육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흐뭇하게 자신의 가족을 이룬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그때의 크고 작은 고생이 곧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나는 '엄마'라는 역할에 자부심이 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장 귀중한 덕목이라고 믿는다. 두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앞 못보는 아빠의 장점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기쁨 없이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권했다. 아이들에게 독서, 대화, 산책, 수영, 이발 등을 아버지와 함께 해보게끔 하면서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산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때때로 나와 남편이 만나,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아버지 대한 존경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제 두 아들 모두 결혼해 내게는 네 명의 손주가 생겼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저 오늘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이제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인생의 순리에 따라 나이를 먹고 세대가 바뀌면 그 역할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미국에서 28년간 교사생활을 한 뒤, 이제는 은퇴해 일흔 살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있다. 우선 네 명의 손주에게 할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아직 못다 이룬 나의 꿈을 향해 남은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그 역할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나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감사한다. (다음호에 계속)



석은옥 여사와 고 강영우 박사

선교지 편

에티오피아

61년 전의 빛을 함께 나누시다!

느가투 할아버지는 한국 방송동 안 극동방송의 3번 인터뷰에서 60년 전과 지금 한국의 느낀 점을 물을 때, 당시 한국은 검은 생선과 밥을 먹던 나라, 산길과 흙탕길만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60년 후의 지금 한국은 수많은 건물과 밤의 빛들을 보면 별 나라로 하나가 되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아이들 먹은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여인네들은 아이들에 젖줄 힘이 없어 우리 음식을 나누어주고 고아원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라며 6.25전쟁 이후 60년 동안 한국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감탄하시며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오랫동안 이 좋은 축복을 나누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느가투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국회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나누시고, 3일후 아들인 밤라쿠가 한국에 도착해서 대원의고 이사장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만나고 한동대학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대원의고에서도 밤라쿠를 학생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6개월의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대원의고에는 기숙사가 없어 광진구 인근에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준비해야하는 단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에서 "잡종은 내친구"와 "선교행진" 방송에 3번 참석해서 한동대학과 대원의고의 특별한 선행, 즉 장학금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2년간의 고등학교 과정 홈스테이를 도울 수 있는 분과 한국 들어오는 항공권을 요청드리고 결과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을 통해 행사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밤라쿠에게 필요한 후원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홈스테이 500,000원/월/기간 2년(고2-3학년) 2)한국어 과정: 6개월(300,000원 x 6개월=180만원) 3)항공권 170만원(아디스아바바-한국) 특별 금액을 후원해 주시거나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약정해주시고 정기 후원자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Mr.Nigatu Mekuria Mihrete(24세에 한국전 참전 에티오피아 군인, 85세)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하일레 슬라세 황제(My power of Trinity)의 명령을 받아 1951-

1952년까지 1년반 동안 춘천 등 동중부 전선고지 10, 11고지에서 싸우다가 다리와 손에 총상을 입고도 중공군의 세력을 저지하는 공로를 세워 4개의 훈장을 받으신 참전 용사로 올해 85세의 나이임에도 강건하시지만 에티오피아의 공산화로 17년 동안 힘들게 사시고 지금도 일금 없이 정부의 1달러 월세 단칸방에서 9명의 가족이 함께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이번엔 막내아들인 밤라쿠를 데리고 오셨다. 한국전에 에티오피아 군인이 6,037명이 참여해 536명이 중상을 입고 122명의 젊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생명을 잃었지만 유엔 16개국 중에서 포로가 한명도 없는 유일한 참전 국가이다.



대원의고 교정에서



한동대학김영길 총장님과



대원의고 이영구 이사장님과

(오늘은 하루 종일 부탁만 하러 다녔다. 참전 용사가 한국에 가시길 위해 가방 하나도 없으시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가방까지 빌려다 드리고 옛날 군복도 빌려다 드리고 바쁘다... 참 이렇게까지 사는 참전용사들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할지... 참전 용사들이여 힘을 내라... 그리고 도전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국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야하는 국회의원과 참전용사 아저씨! 참 가난하시다. 옷 한번 제대로 입으신 게 없으시다. 이 비용으로 옷과 음식이나 실컷 드시도록 하자, 내게 물어 사신 짝이 2번씩이나 모시고 가서 동사무소 주민증 만들어드리고 여권도 신청했다. 이제 외출복이 필요한테, 가방도 필요하고... 내 옷은 너무 작고... 가방은 내 것을 가지고 가도된다. 구멍 난 옷을 빨아 잘 다림질하고 구멍을 막고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고 싶다. 참전군인 제복은 친구인 가셔우 할아버지께 부탁드려야겠다. 옷 한 벌... 양말 한 켤레...숙우 하나...한국에 가면 버리는 것도 많은데 왜 이들은 한개도 없을까?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가보다. 에티오피아에서 다시 61년 전의 부흥으로 한국사람들을 도우라. 먹고고 입고고, 교육시키고...그대들의 정신을 다시 한국의 여유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심어놓으시고 사뿐히 에티오피아로 떠나소서!

Mr.Bamlaku Nigatu Mekuria(고등학교 1학년, 19세)

현재 학교에 10학년에 다니고 있고 한국의 태권도를 한주에 3번씩 배우고 있고 장래 커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미래의 꿈이라고 한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가난한 마르카토 시장이 있는 지역에서 살지만 후원자의 힘을 얻어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어 행복해 하고 있다.

박종국 선교사
▲이메일: cushpar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7771, Fax: (02)325-825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252-8754-5 군포시 광명동 870-10	금천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62-1111, Fax: (02)262-277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340-1212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31-0211, Fax: (02)231-0211 김포시 남양동 20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Tel: (02)232-4411, Fax: (02)232-445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636-11214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0-4401-4, Fax: (02)320-4456 2-10-4 Guro Bldg.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2)327-9289-9, Fax: (02)327-9289-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계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지역예배: 오후 8:00(매일) Tel: 39-09-6777-3988, 39-348-1798 39-09-6777-3988, 39-348-1798 VIA DEI QUERINI 32-38 00173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지역예배: 오후 4:30 (1부)매주 4회 Tel: (02)242-6400-6, Fax: (02)242-6400-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330-1 (159-652)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9:00 Tel: (02)3945-8900-8, Fax: (02)3945-8900-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825-3 (159-652)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월)매주 1회(매일) Tel: (02)231-0211-0210, Fax: (02)231-0211-021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9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6:30 Tel: (02)312-4111-3111, Fax: (02)312-4111-31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번지	성심교회 담임목사: 김병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30 (매주)매주 1회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승문교회 담임목사: 박정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서문소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지역예배: 오후 8:00(매일)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0:30(매일) 주일6부예배: 오후 10:30(매일)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정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31-0211-0211, Fax: (02)231-0211-02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712-1 (159-652)

가정사역 칼럼



행복한 결혼방식(1) -배우자 선택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가정을세우는사람들(Family Builders Ministry 이 하 FBM) 디렉터 김정진 사모가 결혼을 앞둔 청소년들의 상담을 토대로 한 행복한 결혼방식을 제시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데이트와 결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합당한 배우자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배우자감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대와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배우자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찾으면서도 자신이 합당한 배우자가 되는데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훌륭한 배우자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지라도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지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찾기에만 급급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맞는 배우자감은 오직 한 사람만 있습니까?

사례) 내게 맞는 배우자감은 오직 한 사람만 있습니까? 성경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팀 스태포드(Tim Stafford)의 글을 청소년 상담센터 상권에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혼하도록 부르셨다면, 그 분은 당신을 위해 꼭 한 사람을 점지해 두셨을 것이라고 하는게 나의 확신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바로 그 사람을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그 분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꼭 한 사람만 당신을 위해 점지해주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옳을 것이다."

스테이시와 파울라 라인하르트 "우리는 한 사람밖에 없는 합당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합당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구

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신자와만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분명한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넓은 선택의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합당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팀 스태포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결혼식 날 결혼 주례가 서약하는 질문을 받고 '예'하고 당신이 대답하는 그 순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합당한 배우자다. 그 순간까지 당신은 아마도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이후로 그 문제는 해결됐다. 영원히... 나는 두 사람간의 친화성(성격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적인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초점은 친화성이 아니라 결혼의 가장 중심에서 질문되는 그 질문이다. 당신은 '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대답에 충실하고 변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그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합당한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문제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상대방 배우자의 문제라기보다 처리되지 않은 본인의 문제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다른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지금 드러난 그 갈등을 겪지 않고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루시는 과정으로 지금의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부 안에 갈등이 생기면 화가 난 쪽은 '만일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 고생은 안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랍니다. 그러곤 마음으로 옛 애인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결국엔 현재의 배우자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는 마귀의 꾀계입니다.

음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옷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소용공해가 많은 세상이기에 음향기(마이크)를 사용해서서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시대와 문화적 환경이 곧 복음을 전하는 매체이며 복음은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차세대연구소:(714)699 0210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예수님의 복음 (막1:1-8)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뵈려면 더 이상 복음서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는 법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복음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이 복음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 성령의 인도 (막1:9-13)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몰아냈다'는 표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앞서서 사단과 맞서서 물리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묵묵히 따라야 할 줄로 믿

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 분의 인도를 거절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한 가운데로 내모실지라도 우리는 이를 거절해서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 때가 있다 (막1:14-20)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아무 때나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전3:7), "천하만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전3:1). 따라서 우리도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

다.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때에 뿌리거나 추수할 시기에 추수하지 아니하면 농사에 성공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때를 분별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후6:2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종말의 여러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때에 먼저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 사단 권세 (막1:21-28)

23, 24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들린 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해 방해공작을 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설사 듣게 되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고후4:4). 사단은 영혼구원과 교회부흥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사단은

세상임금이므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주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칠 때 말씀의 능력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금 예수님을 위한 방 (막1:29-34)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든 들어와 쉬시도록 방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장모의 열병을 고침 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살릴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님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죄의 집, 질병의 집, 격정의 집, 고뇌의 집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짐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토 기도의 능력 (막1:35-39)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안식일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따라서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과의 교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전5:17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면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 다음세대를 품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섬길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 태어나셨다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잡수시면서 무슨 음악을 들으시며 무슨 찬송을 부르시고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물론 복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사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호주 현지강의 안내

Aug 20-Aug 24 (8월 20 - 8월24일)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Stephen Park

Aug 27-Aug 31 (8월 27 - 8월31일)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21세기 여성 지도력 개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장소: 시드니 안우리 선교센터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공간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IS 평화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 (석사과정)
-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874-372-6100 (Ext. 6336), 8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o@grace.edu, gskomenstudies@gmail.com

Nyskc Movement 2012

Nyskc Family Conference Indiana

July 2 - July 5

“ Glory to the Name of Jesus ”

Principle of Nyskc Movement (Amos 9:-5) Nyskc Conference는 Nyskc Movement를 위한 성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Celebrate Banquet이며 Restoration of Worship을 위한 지상에서의 천국 훈련과 복음을 전파할 Disciples의 Preparation이며 복음의 Troops가 되기 위한 Training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그루터기가 되기 위한 결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름나는 새 사람의 출발이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 시킬 미래 Leaders를 위한 Worship, Seminar, Forum & Workshop이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Recovery하는 Blessing Revival을 말합니다.



총재 피종진 목사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라"
전세계가 감동하는 예배회복운동 Nyskc Movement 뉴욕에서 전세계로!

미국 중부본부 준비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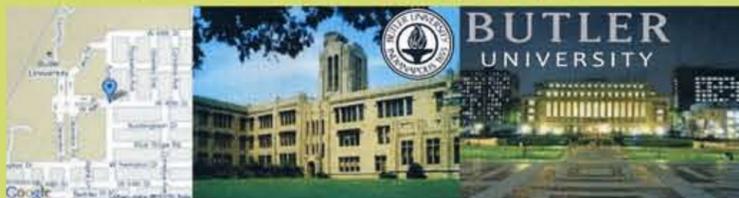
- 중부 본부 본부장 : 김기철 목사(시카고제자들의교회)
- 중부 본부 총무 : 안형기 목사(한인벤델침례교회)
- 총괄 준비 위원장 : 조은성 목사(은혜장로교회)
- 부 준비 위원장 : 강효열 목사(아가페침례교회)
- 총무 분과 위원장 : 김태두 목사(인디웨스트침례교회)
- 예배 분과 위원장 : 김영수 목사(순복음반석교회)
- 선교 분과 위원장 : 김형주 목사(인디애나 한인장로교회)
- 운영 분과 위원장 : 박정환 목사(블루밍턴침례교회)
- 홍보 분과 위원장 : 윤용필 목사(엘림침례교회)
- 협력 분과 위원장 : 장철승 목사(제일장로교회)
- 차량 분과 위원장 : 송재호 목사(새소망침례교회)

미국 자문위원

- 유근희 목사(베델크리스천교회)
- 김동준 목사(베델크리스천교회)
- 조인호 목사(순복음인디애나교회)
- 반기열 목사(인디폴한인침례교회)
- 장옥정 목사(제일순복음교회)
- 김정하 목사(아바침례교회)

New Life
Yielding for Manna
Salvation for one by one
Keeping for LORD's day
Complete Offering

장소 : Indianapolis Butler 대학교 대강당



Nyskc World H.Q. 조직위원회

- 총재 : 피종진 목사(서울)
- 대표회장 : 최고선 목사(뉴욕)
- 상임회장 : 디모데박 목사(오사카)
- 실무회장 : 이병완 목사(와싱턴DC)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회장 : 윤사무엘 목사

행사안내 및 등록문의 U.S.A.

- 대상 : Family & 목회자 부부
- 장소 : Butler University
4600 Sunset Ave.
Indianapolis, IN 46208
- 등록마감일 : June 5, 2012
- 참가비 : (교통비 별도)
- 일반인 \$300, 목회자 1인 \$150
- T. 845.355.8829, 937.620.4834
646.203.2644, 917.698.9965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e-mail:nyskmission@gmail.com